

Deloitte Newsletter



2013 년 6 월

딜로이트 인사이트

구분회계 -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윤영원 전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최고경제인 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역임
감사원 감사조정활동위원 역임
교과부 대학설립심사위원 역임
복권위원회 성과평가위원 역임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위원
제조/소비/ 공공부문 전문가
현재 딜로이트에서 제조/소비/공공부문에서 회계감사, 기업자문 및 경영 컨설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구분회계의 도입 필요성

매년 3 월부터 6 월까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되는 기간이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첫해로 공공부문의 평가와 인사에 각별히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부문의 평가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문제, 공공요금문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문제 등으로 인한 영향이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평가는 상당히 체계적인 골격을 갖추고 있다. 먼저 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해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증가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사후적인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 강화하는 등의 정책공약이 제시되어 있다.

이상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 구분회계에 있다.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에 대한 평가분석,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에 대한 평가분석,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사후적인 심층평가 분석, 부채발생 또는 증가의 동인분석,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평가분석, 공공요금 산정의 적정성과 정보공개 분석 등이 모두 구분회계를 기초로 한다.

국가예산이든 공공기관 자체의 예산이든 크게 보면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과 사업에 대해 세부단위별로 구분해 시스템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과 책임경영을 묻는 것이 어려워진다. 다시 말하면 특정사업에 대해 계획(Plan)하여 실행(Do)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Check & Feedback)를 위해선 그 특정사업이 다른 사업과 구분되어 관리되어야만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기초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단위별이든, 주요사업단위별이든,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예산 단위별이든 구분회계의 도입 필요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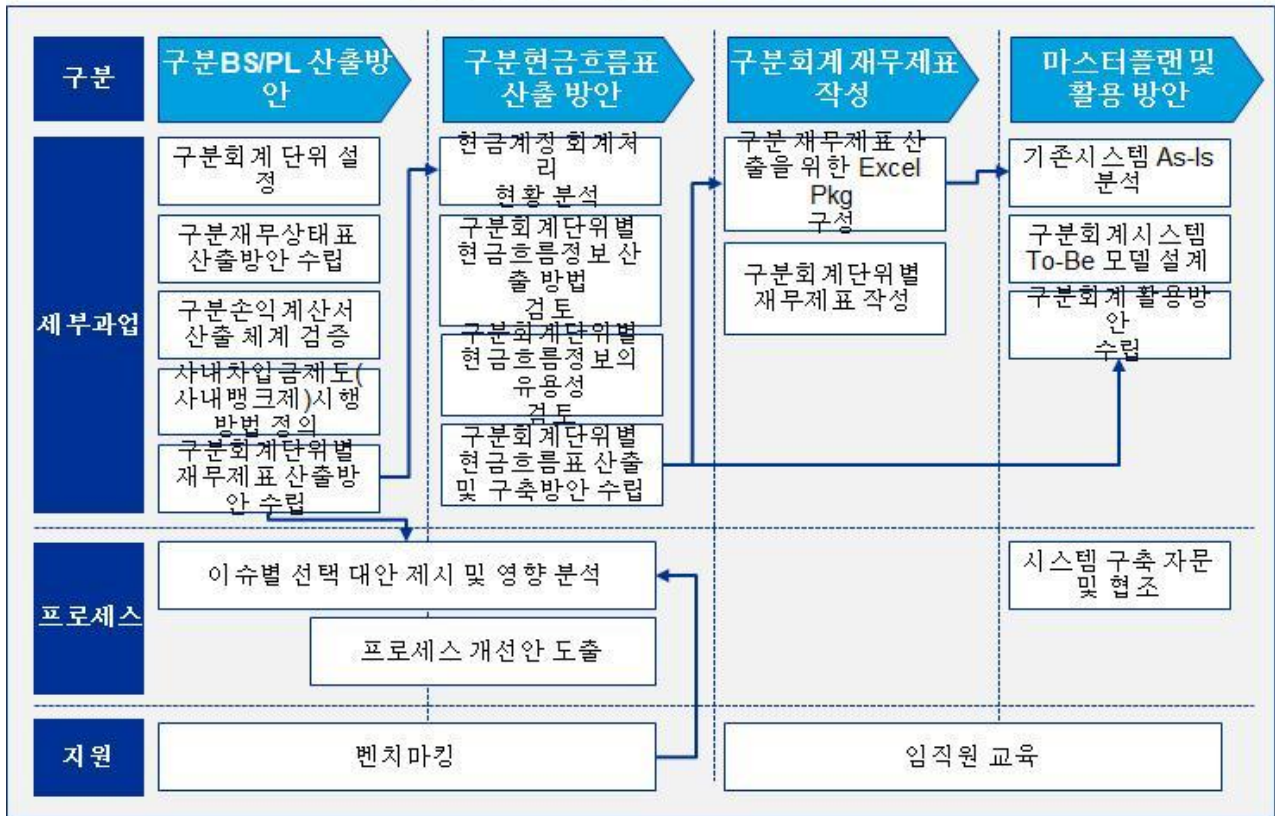
구분회계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구분회계는 주요 경영의사결정, 주요 사업 및 정책 사업 단위 분석, 부채발생 및 증가의 동인분석, 그리고 정보공개 등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가 된다.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합리적 기준과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등의 부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분회계 도입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으로는 우선 정책당국과 이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관점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사업별로 구분해 자산·부채·손익을 적절히 관리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구분회계 도입의 일반적 적용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대상 기관 또는 사업단위 선정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부채가 있는 기관 또는 부채관리가 필요한 기관, 대규모 부채유발사업, 공공요금 등의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교차보조 사업, 정보공개 수준 등에 대한 사항도 사전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관점에서는 구분회계에 대한 운영현황 분석, 도입목적 달성을 위한 원칙과 세부운영지침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등 실행방안의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구분회계 사업단위 설정, 구분재무상대표 산출방안 수립, 구분손익계산서 산출방안 수립, 구분현금흐름표 산출방안 수립, 구분회계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구분회계시스템 구축 Framework



*구분회계시스템 구축 Framework 요약

구분회계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

앞서 설명했듯 구분회계의 중요성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의사결정 수단이라는 점에 있다. 구분회계 도입으로 책임경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단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사업리스크 관리강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평가, 공공요금산정의 객관적인 기초자료 산출, 그리고 부채 증가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월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구분회계 도입 방안과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도입방안과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들의 추진전략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4층~12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el. 02-6676-1000 Fax. 02-6674-2114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6676-3800 Fax. 02-6674-8700

© 201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www.deloitte.com/kr www.facebook.com/DeloitteKorea